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Social Inclusion)의

개념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사회적 배제에서 포함으로-*

신 유 리⁺

(동의대학교 강사)

김 경 미⁺⁺

(숭실대학교 부교수)

유 동 철

(동의대학교 교수)

김 동 기

(목원대학교 조교수)

[요 약]

최근 사회적 포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에 대한 연구들도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당사자들로 하여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와 자원 등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패러다임의 재고, 새로운 관점 및 개념의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사회적 포함의 관점이나 개념적 접근은 장애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제반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실천적 과제제안에 유용한 접근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우선, 사회적 배제와 포함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부터 각 개념과 구성요소, 특성, 유용성 및 제한성 등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기초로 장애인에 대해 사회적 포함이 어떻게 개념화 되는지 고찰하고, 그리고 장애인복지에서 사회적 포함의 개념적 접근이 갖는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장애인, 사회적 배제, 사회적 포함의 개념화, 이론적 고찰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NRF-2010-330-B00210).

+ 주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우리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이 지배적이다(Kitchin, 1998; Hedlund, 2000).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거나 차별을 당하는 것은 사회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에 기인한다. 더욱이 그들은 생물학적 손상 혹은 기능 제약으로 사회참여 자질이 부족하고 무능력하며, 노동시장에 부적응하여, 사회적으로 단절된다는 등의 가중된 편견을 생애과정에 지속적으로 직면한다. 이렇듯 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고정관념과 차별은 배제적인 구조와 제도에 기인한 것이며 또한 그러한 제도가 문화로 고착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로부터 장애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되기보다 사회문화적으로 생산되는 구성물임이 확인된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의 장애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생물학적 담론에 기초한다(Hughes, 2002). 장애인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는 생물학적 관점으로부터 전환하여 구조와 문화, 관계 등을 고려한 포괄적인 개념 혹은 접근 패러다임으로 가능할 것이다(Room, 1995; Silver and Miller, 2002; Arthurson and Jacobs, 2009). 이를 위해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특성을 지닌 사회적 배제 틀을 장애 현상에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빈곤이나 일원적인 장애접근 모델 등 다른 접근법과 달리 현상에 대한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공간적 차원에서의 원인과 결과 등을 규명하고 이를 재구조화 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듯 배제 개념 혹은 그 개념적 접근법 활용의 상당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는 근대사회의 제도와 관계, 환경 등에 고착된 채 정상이라는 주류 사회의 절대적 가치만을 잣대로 삼는 제한점을 지닌다(Hedlund, 2000). 그로 인해 오늘날 다원화된 사회에서 성별, 연령, 신체적 차이, 계층, 지위 등에 따른 개별적인 집단 간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집단 내의 차이를 포용하지 못한 한계에 직면했다. 이로써 장애인 등의 내적 가능성과 잠재력, 자원 등은 도외시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그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기제만 사회적으로 더욱 강화시켜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Sibley, 1998; Bowring, 2000; O'reilly, 2005; Rimmerman, 2013).

장애라는 현상을 구성하는 제도와 문화, 관계 등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리 구성된다. 이들 현상 내에는 성별, 인종, 연령, 계층 등 다양성에 의해 차별적인 경험들이 존재한다. 이에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를 차별로 양산해 내는 이분법적 기제가 아닌 주변적인 위치에 있는 개인 혹은 집단의 욕구, 관심, 열망 등을 포용하는 포괄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즉 획일적이거나 일원적인 가치에만 국한된 기존 관점에 도전하며 탈근대적인 맥락에서 다원적인 가치체계를 존중하고 고려하는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Christie and Mensah-Corker, 1999; Browring, 2000; Department of Health, 2001). 이를 위해 장애인들을 복지수혜자, 객체로 대상화하는 근대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기존 사회제도와 환경, 관계 등에 대한 재구조화 작업이 요청된다. 이렇게 당사자들이 독립적인 한 시민권자로서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완전히 참여하고 포함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과 관점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애인복지 영역에 통상적으로 활용되었던 대부분

의 개념이나 접근 모델은 배제와 박탈, 은폐 중심의 시각을 취하며 그로 인해 당사자들의 능력, 창의성,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은 묵과되어 왔다. 또한 당사자들의 사회적 포함을 위해 그들의 사회권을 비롯한 자율성, 선택과 통제, 자립, 사회연계, 수용, 자원 등 요소들이 간과되어 왔다는 점이 본 연구의 문제제기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문제 중심의 이분법적 접근이나 논리에 도전하는 대안적 개념으로 사회구조적 심리사회적 관계적 등의 차원으로부터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요소들(Bauman, 1998; Christie and Mensah-Corker, 1999; Browning, 2000; Department of Health, 2001; Rioux, 2002; O'relly, 2005; Rimmerman, 2013)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사회적 포함의 개념과 그 접근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그 정의를 규정하는 데 본 연구목적이 있다. 특히 사회적 포함에는 능동적인 시민(active citizenship)이란 개념이 새롭게 등장한다(Browning, 2000). 근대 시민권이 개인의 권리만을 주장했던 것에 반해 이에는 개인의 책임이 함께 강조된다(윤인진·이진복, 2006). 또한 이 개념은 장애인들의 특수한 욕구와 상황을 포용한 차별화된 사회적 권리를 구성요소로 한다는 점, 그리고 당사자들의 자율성과 자기 신뢰, 자존감, 자립, 가능성, 자원 등 관계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사회적 포함의 개념화 작업은 의미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와 포함에 관한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를 채택한 것은 사회적 배제와 포함이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며 더욱이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에 관한 학문적 차원의 이론적 논의들이 현재까지 지극히 부족한 상태이다. 이처럼 하나의 실체가 아직 개념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초기단계에서 이를 탐색하는 접근법으로 단선적이며 계량화하는 실증주의적 연구보다 총체적인 접근 시각을 지닌 문헌연구가 보다 유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출된 연구결과는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의 개념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완전히 참여하는 등 동등한 시민권적 권리를 가진 자로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실천적 과제제안에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합의가 있다.

2. 사회적 배제와 포함에 대한 이해

1)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해

(1) 사회적 배제의 개념 및 특성

초기 사회적 배제 개념은 Max Weber에 의해 사회적 폐쇄의 한 형태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배제 개념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는 억압이나 희생, 분리 문제 등에 대한 분석 틀로

는 발전되지 못했다. 그러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당시 프랑스의 경제기획성의 책임자였던 Pierre Masse에 의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이후 Lenoir에 의해 그에 관한 인식 지평이 확장되었다(심창학, 2001; 문진영, 2004). 이어 프랑스 정부는 배제된 자들을 통합 혹은 편입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능 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다가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은 1980년대 이후부터 유럽사회에 발생하는 순환적인 실업, 사회적 고립, 연대쇠퇴, 노동시장 및 사회적 네트워크의 붕괴현상까지 다룰 수 있는 포괄적으로 의미로 사용되었다(심창학, 2001: 191-193).

이렇듯 포괄적인 특징을 지닌 사회적 배제는 1980년대 이후 유럽선진국들이 직면한 빈곤과 만성적 실업 증가 등 새로운 형태의 빈곤 혹은 복잡한 사회문제의 이슈들을 유용하게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면서 그 개념을 규정하는 이론적인 차원의 논의부터 실증적 연구를 통한 관련요인, 측정지표 개발, 국가 간의 비교, 배제 해소를 위한 정책적인 차원의 과제제안 등까지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하지만 사회적 배제 개념은 국가와 사회, 맥락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정의됨으로 명확한 개념으로 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적 접근법은 오늘날의 빈곤과 불이익 문제의 원인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 재구조화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틀이라는 점에는 합의의 모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하게 규정된 개념들 가운데 몇몇 학자들에 의해 정의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우선, Pierson은 사회적 배제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경제·정치적 활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으로부터 박탈되는 일련의 체계적인 사회적 과정”으로 정의하였다(Pierson, 2002: 강신욱 외, 2005 재인용). 이 같은 맥락에서 Silver(1994)는 사회적 배제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충분히 포함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 자원에 대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접근 및 이용 기회의 박탈로 정의 한다”. Atkinson과 Davoudi(2000)에 의하면 사회적 배제는 일련의 과정, 즉 개인과 집단의 시민권적 권리, 사회적,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제도적, 문화적 과정이며 또한 노동, 주거, 사회보장, 교육, 건강, 교통수단, 사회서비스 등 전반적인 사회체계 접근을 억압하는 사회적 기제로 정의된다. 또한 서병수(2005)는 “개인이나 집단이 소속된 사회에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온전한 참여로부터 배제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진영(2004)은 Julian Le Grand의 사회적 배제 개념정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배제란 “한 개인이 지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면, 사회(기관)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재정의 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심창학(2001)은 사회적 배제를 “구성원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제반 권리(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가 박탈당하면서 사회의 주류질서로부터 유리되는 역동적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상에서 논의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적 정의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사회적 배제는 “한 사회 내의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전반적인 사회체계에 대한 접근기회와 활동참여, 관계형성, 필요한 자원접근에 다중적인 불리함을 지속적으로 가하여 그들을 주류사회의 질서로부터 체계적으로 유리시키는 일련의 사회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 배제는 국가와 사회맥락, 학자마다 다양하고 상이하게 정의되어 합의된 개념을 정의하기가 힘든 점도 있지만, 후기

산업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현상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기존의 일원적인 빈곤개념보다 훨씬 유용한 접근법이라는 점에는 사회적으로 동의하는 추세이다(강신욱 외, 2005; 2006; 문진영, 2010).

한편, 사회적 배제의 개념정의와 더불어 그 특성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배제의 특성은 다차원성(multi-dimension), 관계성(relativity), 역동성(dynamic), 행위성(agency)으로 보고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문진영, 2004; Silver, 1994; Room, 1995; Atkinson and Davoudi, 2000; Richardson and le Grand, 2002; Silver and Miller, 2002).

이에 사회적 배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배제는 경제, 정치, 문화, 지리, 공간, 법적인 영역 등에 나타나는 다차원적 현상이다. 이러한 다차원성은 물질적 영역과 비가시적인 비물질 영역을 모두 포괄하며 이들 영역 간에는 서로 중첩되거나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발생된다.

둘째, 사회적 배제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구조와의 관계 속에 발생되고 재생산되는 관계성을 지닌다. 사회의 권력 주변부에 위치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자원접근 기회에 불평등을 가하는 관계방식에 의해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성은 사회구성원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다(Silver and Miller, 2002).

셋째, 사회적 배제는 과거의 조건과 경험이 현재와 미래의 개인이나 집단의 조건을 형성하는 누적되고 중첩된 과정으로 역동성(dynamic)을 지닌다. 사회적 배제는 이렇게 시간성을 감안하며 그 흐름 속에서 누적되어 나타나는 방식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제는 개인과 집단을 주류사회의 질서와 규범으로부터 유리시키고 분리시키는 행위 주체(agency)가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행위를 기획하고 재생산하는 주체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개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적 배제를 창출하는 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배제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문진영, 2004). 이 같이 사회적 배제 개념의 등장배경을 포함한 학자들에 따라 다소 달리 규정되는 개념적 정의와 구성요소, 독특한 특성들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배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다.

(2) 사회적 배제 접근의 유용성과 제한성

사회적 배제는 1960년대 사회적 폐쇄의 한 형태로 언급된 이후 1980, 90년대 유럽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유럽 국가들이 직면한 심각한 빈곤과 불이익 문제 등 사회문제를 규명하고 그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되는 등 상당히 기여해 왔다. 이렇듯 배제 개념이 빈곤하고 사회적으로 주변화 된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를 파악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제기되면서 일원적인 빈곤접근 등 기존의 문제 분석틀이 다룰 수 없었던 사회, 문화, 경제, 문화적 맥락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발생 원인과 결과, 특성 등을 규명하는 유용한 분석틀로 활용되었다. 즉 이 같은 개념적 접근법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직면하는 교육과 고용, 의료, 사회서비스 등의 접근기회의 박탈, 사회적 단절, 실업, 사회구조물에 대한 접근권의 박탈, 낙인 등과 같은 사회 제반에 내재된 불이익과 불평등 현상을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분석 가능했다.

이렇게 사회적 배제의 개념 혹은 접근법이 사회현상이나 문제분석,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과제제안에 상당히 기여한 바도 인정되는 반면, 그에 대한 한계점 또한 보고된다(Sibley, 1998; Browning, 2000; Colley and Hodkinson, 2001; Hall, 2010). 이에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된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제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ibley(1998: 119)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배제 현상을 유발하는 그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한 채 정상사회에서 배제된 집단과 포함된 집단을 구분하여 그들 간의 경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이분법적 개념임을 지적한다. 이러한 개념은 장애인, 노숙자, 빈민, 여성, 만성질환자 등이 주류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 집단임을 사회적으로 더욱 가시화시켜 이로 인해 오히려 그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혹은 분리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등 사회 부작용을 초래했음을 지적한다. 즉 이분법적 접근으로 사회적으로 포함된 집단과 배제된 집단 간의 사회적 거리감만 더욱 가중시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나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데는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치 못했음을 비판한다.

둘째,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도덕적 통합이나 사회적 응집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이를 위해 고용시장의 임금노동 등 경제적인 측면만을 주요 획득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배제 담론에서 임금노동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무급 돌봄 노동과 비노동시장 참여의 가치와 그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간과해 왔다. 이에 오늘날 단절되고 비연속적인 노동의 급속한 증대로 인해 야기된 당사자들의 사회적 정체성이나 자아 존중감 결여문제 역시 도외시 했다는 점에 비판받는다.

셋째, 배제 관점은 하층계층을 도덕적, 문화적, 행동적으로 결핍된 구성원으로 보며, 그들의 성향이나 생활방식을 게으름이 내포된 하위문화로 규정했다. 이로부터 사회문화적으로 그들을 복지 의존대상이며 사회적으로 배제된 객체로 규정짓는다. 이에 배제 개념은 그들에게 획일적인 사회윤리를 재주입하고 보다 제한적인 급여 기준을 적용하는 근거로서 활용되었다. 그에 권력계층이나 전문가 집단은 기존 복지체계의 재구조화를 주장하며 그들을 도덕적 윤리적 비판대상으로 삼는 논쟁들을 가속화 시켜왔다는 점 또한 지적받았다.

넷째,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빈곤과 불평등을 경험하는 하층계급을 비정상적으로 규정짓는 관념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주류사회가 기대되는 사회활동이나 소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의존적인 대상으로 취급한다.

이 같은 접근은 당사자들 스스로 획득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지식이나 능력, 역량, 주관적인 가치를 가치절하 평가한다. 또한 개개인의 자율성이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주류사회에서 비가시화 하는 한편 주류사회의 유지에 요하는 문화와 지배적인 규범에로의 일방적인 순응만을 요구한다는 점에 비판받는다.

마지막으로 배제의 개념에서의 관계는 재화, 노동, 서비스 등 생산적 가치와의 교환적 관계에서만 전제된다. 물질적 교환관계에서 인간의 활동과 가치, 역할 등은 도외시 되며 이러한 교환관계에서 벗어난 관계는 모두 일탈로 간주된다. 즉 물질적 자원이나 생산적 가치 여부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결정된다고 본다.

이로써 임금노동의 가치 이외 인간의 존재감, 사회연대의 가치, 스스로의 동기부여, 대안적 가치 등

과 같은 상호 호혜적인 가치로 인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개인과 사회, 국가 간에 형성되는 다층적인 관계성을 배제해 온 제한점이 지적된다.

이상에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온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나 개념적 접근법의 제한점들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특성을 지닌 배제 접근법이 사회문제의 분석틀로 상당히 기여해 온 점들도 확인된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 다원화 된 사회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만을 그 기준으로 삼아 사회적 분리와 경계만을 더욱 강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등 그 한계점이 보고된다. 그럼으로 기존 관점에 도전을 가하며 개개인의 주체성, 자율성, 신뢰, 행위성 등 새로운 개념과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사회적 포함은 장애인, 노인, 여성, 빈민 등 사회약자들에게 가해지는 근대 사회제도와 관계 등에 도전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이라 생각된다.

2) 사회적 포함에 대한 이해

(1) 등장배경 및 개념정의

과거 공공연하게 논의되었던 배제담론은 최근 십여 년간 사회적 포함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 유럽연합 의회에서 빈곤층, 정신장애인,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 등에 가해지는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그들을 보다 사회에 포함시키고자 이를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제시 하면서부터 더욱 구체화 되었다. 이들 보고서에 의하면 빈곤, 불평등 수준, 실업, 교육, 건강서비스 등이 배제 요인인 동시에 사회적 포함의 장벽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영국을 비롯한 호주, 아일랜드에 이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포함 정책을 마련하는 데 반영되었다.

실제 배제담론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의 주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에 반해 사회적 포함은 사회약자들이 사회에 포함되는 능동적인 과정에 주안점을 둠으로 당사자들을 비롯한 실천가, 정책 입안가 등으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사회적 배제 관련 연구들이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참여를 실제적으로 구체화시키지 못해 그로 인해 야기된 학문적 사회적 불만이 사회적 포함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사회적 포함¹⁾은 최근 들어 가속화된 경제의 세계화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 생존권 확보를 위해 근대의 시민권적 권리 확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로부터 다원화된 사회에 성별, 연령, 계층, 지위 등 다양성에 차별과 배제를 가하는 기존 사회권의 재정립의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다.

한편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사회적 포함 개념의 등장배경에서는 탈시설화 운동, 정상화,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 등 장애인운동과 이념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Fyson and Simons, 2003; Simpson and

1) 포함 용어는 1990년대 후반 Giddens의 제 3의 길에서 평등의 의미를 설명함에 있어서 평등을 포함(inclusion)으로 그리고 불평등을 배제(exclusion)로 설명하기도 했다. 두 개념 모두 불평등을 분석하는 개념적 틀로서 활용되었다(김영란, 2001; 한상진·박창욱 역, 2003).

Price, 2009). 통상적으로 탈시설화 개념을 사회적 배제로, 정상화는 사회적 포함으로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지닌 포함 개념에 상응되기는 부족한 면이 상당하다. 이 개념 내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완전 참여와 사회적 포함에 요구되는 다양한 자원, 관계성, 선택 및 통제, 자율성 등 기존의 장애접근모델이나 패러다임에서 간과되었던 다원적이고 능동적인 요소들이 다뤄진다.

이렇게 탈시설화와 정상화, 통합 등의 영향을 받은 포함의 개념에는 장애인들을 억압하고 병리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반배제적인 정책이나 실천전략 또한 등장하는데 이는 1980년대 등장한 급진주의 실천이념인 임파워먼트 실천의 영향이다. 임파워먼트 개념은 1990년대 초 영국 건강서비스와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 법(The National Health Service와 Community Care Act)에서 강조되면서부터 그 개념적 활용수준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 같은 반억압적 실천전략이나 이념은 전반적인 사회복지 영역에 광범위하고 빠르게 전개되었다. 그의 영향으로 장애인 영역에서도 새로운 장애운동이 함께 일어났으며 그러면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선택 등 이슈들이 새롭게 논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쟁은 1990년대부터 보다 가속화 되어 장애인들의 사회적 권 추소에 부당함과 이의를 제기하는 등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 선택 및 통제 등을 강조하는 당사자 중심의 장애운동으로 새롭게 전개되었다(Simpson and Price, 2009).

특히,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사회적 포함이라는 정책 아젠다 등장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영국은 Department of Health(2001)와 Scottish Executive(2000)의 보고서 발표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적 포함을 위한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자율성 보장을 정책과제로 제기하면서부터 현재까지 관련 정책발달에 지속적인 노력을 가해 왔다. 사회적 포함이란 정책 아젠다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비롯한 아일랜드, 호주 등에서도 활발히 연구되어 관련 정책기조로 활용되었다(Fyson and Simons, 2003; Forbat, 2006; Simpson and Price, 2009; Carnaby et al., 2010). 이들 국가들은 오늘날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하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장애와 빈곤, 장애와 배제, 장애와 포함 간의 상호 연관성 또한 중시한다.

이렇게 등장한 사회적 포함은 합의된 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각 학자들에 따라 다소 달리 정의되는 데 이러한 개념적 정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Australian social Inclusion Board(2010)에 의하면 사회적 포함 개념은 배우고(learn), 일하고(work), 참여하고(engage), 정치적 발언권을 갖는(have a voice) 등 이에 필요한 자원(resource), 기회(opportunities), 가능성(capabilities)을 획득하는 총체적인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 같이 사회적 포함의 개념은 자원과 기회, 능력 간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보며 구체적으로 자원(인간과 사회, 경제적 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형식의 자본)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산을 의미하며, 이들 세 구성요소들은 개인과 가족 혹은 지역사회 등에 주로 연관된다. 또한 여기서 지칭된 발전능력 혹은 가능성(capability)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원과 기회를 활용하는 개인능력(혹은 에이전시)이며, 기회(opportunities)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혹은 구조를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European Commission's Directorate-General for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2004)는 사회적 포함은 빈곤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개인 혹은 집단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생활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상이라고 규정된 삶의 수준 및 안녕을 누리 기 위해 필요한 기회와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규정한다. 이 개념규정은 스스로의 삶과 기본적인 권리접근에 영향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보장의 의미도 내포한다. 또한 Simpson과 Price(2009)에 의하면 사회적 포함은 사회적 권리 혹은 시민권, 완전참여 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그 원칙으로는 권리의 원칙, 독립의 원칙, 선택의 원칙, 포함의 원칙 등으로 언급된다. 실제적으로 탈시설화 운동 혹은 정상화 이념만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은 보장될 수 없으므로 이 개념에는 당사자들의 사회적 권리와 참여, 기회평등의 보장, 경제적 사회적 표현, 선택 및 통제, 임파워먼트 등이 함께 강조된다.

다음으로 Rimmerman(2013)은 사회적 포함은 관계성과 시민권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고 수행해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그는 포함은 소속감 강화와 관계성, 시민권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의사소통의 원활함과 지지적인 환경, 동등한 기회는 그의 수준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고한다. 이의 전략으로는 사회적 보호와 사회적 자본 등이 제시되며 이를 통해서 시민으로서의 선택권과 통제, 자율성이 획득 된다고도 본다. 또한 Rimmerman(2013)은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사회적으로 포함되거나 소속되었다는 느낌 혹은 인식을 갖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또한 자기 옹호(self-advocacy)와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계획과 수행, 개입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선택 및 통제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본다. 특히, 사회 한 구성원으로 또는 소속된 집단의 지지자로서의 옹호활동은 사회적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되며 장애인들의 사회적 포함 관련 정책 마련에 당사자들의 관점 이해와 경험공유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언급한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하면 “사회적 포함이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사회 전반적인 제도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소득과 자산, 기회, 사회 기반시설, 연대감, 자기 존중감 등의 확보, 더 나아가 이들의 공평한 재분배를 통한 포괄적인 자원 확보로 사회, 경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완전히 참여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렇듯 사회적 포함은 다각적인 요소들로 구성되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도출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구성요소 및 특성

사회적 포함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 구조적 차원의 요소와 심리사회적 차원의 요소 모두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제도에 대한 접근권리를 동등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회의 제도화와 사회적 권리 등이 제도적 구조적 요소로 제시된다 (Department of Health, 2001; Rioux, 2002; O'relly, 2005; Ware et al., 2007; Simpson and Price, 2009; Rimmerman, 2013). 특히 이는 임금노동과 비장애 남성 중심으로 편성된 사회권이 아니라 성별, 연령, 계층, 지위, 장애 등 집단 간의 다양성, 그리고 집단 내 차이, 욕구, 관심 등을 다룰 수 있는 차별화된 사회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권을 비롯한 소득과 수입, 자산, 기회 등에 대한 공평한 재분배가 구조적 차원의 요소로 포괄된다.

다음으로 심리사회적 차원의 구성요소는 사회적 관계, 소속감, 사회적 수용, 자기 존중감 등이 보고

된다(Department of Health, 2001; Wistow and Schneider, 2003; Abbott and McConkey, 2006; Simpson and Price, 2009). 사회적 관계는 장애인 개개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사회, 국가와의 관계를 모두 포괄하여 다뤄진다. 이렇듯 포함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구조적 차원의 요소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차원의 구성요소가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포함의 구성요소 탐색에 이어 관련 개념적 특성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Department of Health, 2001; Rioux, 2002; Wistow and Schneider, 2003; O'relly, 2005; Abbott and McConkey, 2006; Simpson and Price, 2009)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포함은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합의된 명확한 개념으로 규정짓기는 어렵다. 그 구성요소는 일원적인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복합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들 각각적인 요소들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으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사회적 포함의 수준은 상이해진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사회적 포함은 포용, 통합, 결속감, 응집력 등 유사 용어와 함께 병행되어 활용되기도 한다.

둘째, 사회적 포함의 주체는 다원적이다. 오늘 다원화된 사회는 다원적인 행위자를 지닌다는 것이다. 기존의 배제 개념은 그 특성상 사회 혹은 국가라는 유일한 에이전시(agency) 혹은 행위주체만을 규정했던 반면 사회적 포함에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인정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다룬다. 이러한 특성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체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포함의 개념에서는 상호 간의 의존성이나 연대, 혹은 보완이 보다 강조된다. 이로부터 기존 관점의 재정의의 필요성 제기과 더불어 적절한 대안적인 접근개념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적 포함의 개념은 동태적이고 역동적인 체계로 다양한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적 속성에 기초한다. 사회적 관계는 개개인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역동적이고 다층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 간의 심리사회적인 차원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포함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동태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포함 개념에서는 사회 한 구성원으로 느끼는 연대감, 수용, 소속감 등과 같은 포함의 수준이나 정도 등이 중시되며 이로써 그 사회에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갖는 태도와 인식, 느낌, 감정 등이 함께 고려된다.

3) 사회적 배제와 포함의 개념적 특성비교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사회적 포함의 개념은 복합적이고 다원화된 행위주체, 그리고 동태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사회적 포함은 기존의 사회적 배제 개념과 상반되는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개념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점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들을 통해 사회적 배제와 포함이란 실제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사회현상임을 밝힘으로써 확인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사회적 포함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두 개념 간의 공통성보다 차별적인 측면을 탐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 보고된 사회적 배제와 포함의 두 개념 간의 차별적인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 활용된 개념 간의 비교 틀은 몇몇 학자들(Sibley, 1998; Browring, 2000; Rioux, 2002; O'relly, 2005; Simpson and Price, 2009; Rimmerman,

2013)에 의해 제시된 패러다임과 목적, 에이전시, 전략 및 원칙, 관계성 등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다.

첫째,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사회문제나 사회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재구조화 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 관점은 문제 중심적인 데 반해, 사회적 포함은 사회정의를 이론적 기초로 하며 이를 사회체계 전반에 구현하고자 한다(Sibley, 1998). 사회적 포함이 지향하는 목적은 주변화 된 개인이나 집단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한 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권리 확보, 나아가 주류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와 더불어 시민적 권리에 상응하는 개인의 의무와 책임 등을 함께 강조한다(Cameron, 2005). 이러한 포함 개념은 권리의 원칙, 독립의 원칙, 선택과 통제의 원칙, 기회평등의 원칙, 책임의 원칙, 임파워먼트의 원칙 등을 원칙으로 삼는다(Department of Health, 2001: 3; Rimmerman, 2013).

둘째, 사회적 포함의 전략으로는 사회보장이나 서비스체계, 임금노동, 독립생활, 자기 옹호, 내적 잠재력, 민주적 운동, 지역사회 참여 등이 제시된다(Christie and Mensah-Corker, 1999; Browning, 2000). 이는 유급노동 참여수준의 확대와 독립생활,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실제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포함 개념은 배제에서 다뤘던 광범위하고 거시적 변화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소비(consumption), 생활양식(lifestyle), 정체성(identity) 등 규범적이고 일상적인 실천(a normative practice)에 주목한다. 반면 배제 개념은 그 실행 원칙과 전략이 불분명하며 구조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거시적이고 광범위한 방안만을 모색함으로써 오리려 배제 현상을 해소하는 데 모호함을 호소한다.

셋째, 두 개념의 행위주체 즉 에이전시에도 차이가 있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현상을 유발시키는 단일한 에이전시(agency)로 경제적 문화적 자본주의 유지에 요하는 구조 혹은 문화 등을 전제한다. 반면 포함 개념은 탈근대적 맥락에서 개인을 비롯한 집단, 공동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행위주체를 인정하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 및 맥락 등을 중시한다.

넷째, 사회적 배제 개념은 빈곤 혹은 주변화의 원인 및 결과에 초점을 둠으로써 결국 배제 현상의 상업적 생산과 취약집단의 의존성 재생산 담론을 생성케 한다. 반면 포함은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인정하는 담론,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제활동을 비롯한 사회연계, 활동참여 등 다양하고 능동적인 담론을 생산하는 데 집중한다.

다섯째, 배제 개념은 비장애 남성 중심의 임금노동을 기반으로 한 제한된 사회권을 반면 사회적 포함은 능동적인 시민성(active citizenship)이란 새로운 개념적 요소를 포괄한다. 능동적인 시민권이란 인종과 민족, 젠더, 장애, 계층, 지역 등 다양성을 고려한 차별화되고 보편적인 권리로 근대적인 권리 개념을 넘어 그에 상응하는 개인의 책임과 능동성 등을 함께 강조하는 시민권이다.

여섯째, 관계 측면에서는 배제 개념이 경제적 생산 가치나 물질적 교환가치를 중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를 반면 사회적 포함은 상호 신뢰, 협조, 동기부여, 호혜적 가치 등을 기반으로 한 관계성을 추구한다. 더욱이 이는 물질적 비물질적 교환관계를 모두 포괄한다(Bauman, 1998; O'relly, 2005; Rimmerman, 2013).

마지막으로, 배제 개념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차원에서의 불이익과 불평등 요소로 구성되는데 곧 이는 권리의 박탈, 제한된 참여, 물질적 결핍, 관계단절, 고정관념 등에 해당된다. 반면 포함 개념의 구조적 차원의 요소로 권리, 기회, 참여, 소득 등이며 심리사회적 차원의 요소로 사회적 수용, 소

속감, 네트워크, 자원 등을 비롯한 개인의 책임, 역량, 자존감 등 비가시적이고 능동적인 요소들로 구성된다.

<표 1>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포함 개념의 특성비교

개념 구분	사회적 배제	사회적 포함	출처
패러다임	문제 중심적	사회정의	Sibley(1998)
목적	- 사회문제의 구조, 제도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원인분석 및 규명 - 차별, 편견, 취약성의 가시화 및 확인	주변화 된 개인과 집단의 사회체계, 영역에 대한 완전참여와 포함	Cameron(2005)
원칙/기준	없음	권리, 독립성, 선택 및 통제, 기회평등, 책임, 역량강화	Department of Health(2001) Rimmerman(2013)
전략	없음	- 임금노동 및 고용수준 증대, 독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 - 자기옹호, 자기 생산능력, 민주적 운동 및 행동, 참여 - 규범적인 소비와 생활양식, 정체성	Christie and Mensah-Corker(1999) Browning(2000)
에이전시	(경제적 문화적 자본주의 유지에 요구되는) 구조 혹은 사회적 역할, 문화적 규범	주체적인 개인, 공동체, 집단, 지역 사회 등, 이들 간의 상호연계	Sibley(1998) Browning(2000) Hall(2010)
담론	빈곤과 주변화 원인에 초점 → 사회적 배제의 상업적 생산, 의존성의 재생산	개인, 사회적 연계, 참여, 자기의존성, 유용성 등에 초점	Hall(2010) Browning(2000)
시민권	근대적 시민권	능동적인 시민권(active citizenship) : 권리와 책임이 함께 강조됨	Browning(2000)
관계성	물질적 교환관계	상호 호혜적 교환관계	Bauman(1998) Rimmerman(2013)
구성요소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차원에서의 불이익과 불평등 요소	권리, 완전참여, 사회적 수용, 네트워크, 자원, 책임, 역량 등	Hunter and Jordan(2010) Simpson and Price(2009)

3.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 관련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 개념적 논의시도부터 실제

상황이나 맥락에서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현상분석과 주제도출,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영향요인 규명 등이 수행되었다. 특히 이들 선행연구들은 전통적인 장애접근모델이나 패러다임에서 도외시되었던 지적장애, 학습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인 등 당사자들의 시각에서 사회적 포함현상을 규명하며 그로부터 다양한 주제나 영역, 촉진요인 및 방해요인 등을 제시했다(Wistow and Schneider, 2003; Butler and Hodge, 2004; Hall, 2005; Pawson et al., 2005; Abbott and McConkey, 2006; McCokey, 2007; Ware et al., 2007; Hall, 2009; 2010).

우선, 사회적 포함 관련 선행연구들 중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자 지표개발을 한 Australian Social Inclusion Board(2010)는 일, 학습, 사회적 정치적 참여, 물질적·경제적 자원, 건강 및 장애, 교육 및 기술, 사회적 자원, 지역사회(구조적) 자원, 주택, 안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세부 지표를 개발했다. 이 연구에는 UN이 제시한 사회적 포함의 원칙인 임파워먼트, 교육, 책임 등이 반영되었다. 이와 다소 달리 Burchardt 외(1999)의 연구에서는 생산(고용, 자녀양육, 자발적 활동이나 일 등 사회적 인 가치가 부여되는 활동참여), 소비(물건과 서비스 구매능력), 정치적 활동(투표 또는 캠페인 참여, 의사결정 참여), 사회적 관여(가족과 친구 또는 지역사회의 연계)영역으로 구분하여 그 측정지표를 개발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Gannon과 Nolan(2004)은 “아일랜드의 장애와 사회적 포함(Disability and Social Inclusion in Ireland)”에서 장애와 교육, 소득, 빈곤, 사회참여 등에 대한 사회적 포함의 정도 및 요인 등을 분석하여 제시했다. 그는 사회적 포함은 기회평등, 임파워먼트, 능동적인 시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하며, 이를 위해 당사자들이 살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역할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요구됨을 언급했다.

또한 유럽연합회 보고서(2003) “질병(Illness), 장애(Disability)와 사회포함(Social Inclusion)”에 의하면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위해 교육, 고용, 주택, 교통 등 각 영역별로 관련 포함 정책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이에는 참여와 독립생활, 노동참여 등에 결정적인 장벽으로 건강상태와 장애요인을 보고했다. 또한 Atkinson 외(2010)는 사회적 포함을 측정하기 위한 1차 지표와 2차 지표를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빈곤율, 소득수준 하위 60%이하의 비율, 소득 재분배의 불평등, 빈곤의 상대적 차이, 지역사회의 응집력, 장기실업률, 실질가정의 수, 저학력이거나 훈련을 받지 못한 비율, 주관적인 건강상태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장애와 사회적 포함 관련해서 수행된 몇몇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Ware 외(2007)는 정신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을 사회적 관여와 시민권적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기존의 평등과 사회통합 개념의 재정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포함을 개인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개발하고 향상시켜가는 과정으로 언급한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서 Abbott와 McConkey(2006)은 지적장애인 68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서 당사자들이 인식하고 경험한 사회적 포함의 방해요인들을 밝혔다. 그 결과로는 첫째, 사회적 포함의 개인적 차원의 저해요인으로 동기부여나 자신감 결핍, 지식 부족, 취약한 건강, 문맹 등으로, 둘째, 기관의 직원과 서비스 관리 차원에서 해당 직원이나 서비스 관리경력 부족, 미비한 계획, 성인으로 대우하지 않는 사회적 태도, 상담시간 부족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태도, 직장이나 여러 활동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접근성 부족, 옹호 집단이나 자조집단 부족 등을 방해요인으로 밝혔다. 마지막으로 거주 지역,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부족, 외부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인적 지원체계의 부재,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 부족,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지역사회 시설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들 가운데 당사자들의 자기 옹호 행위는 그들의 사회적 소외를 해소하고 사회적으로 포함되기 위한 주요인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McConkey(2007)는 사회적 포함의 지표를 구성하여 이를 기초로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포함과 생활조건, 지원된 삶의 조건, 사회적 능력, 관계 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그는 당사자들의 사회적 능력과 주거형태(그룹 홈, 지역사회 내 거주, 캠퍼스 내 거주,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와 사회적 포함수준 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포함수준 확대에 당사자들의 사회적 능력정도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그들의 사회적 능력은 주변 사람들과 접촉정도, 지역사회기반 시설 이용수준, 사회적 태도, 참여 등에 의해 향상됨을 보고했다.

학습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 관련 Hall(2005)의 연구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학대, 냉소, 조소 등과 같은 배제 경험을 제시하는 한편 그 가운데 사회적 수용과 협동, 지역사회 참여, 소속감 등 포함의 경험도 함께 발생됨을 보고했다. 또한 그는 신체 장애인들의 경험하는 사회적 포함의 주제로 사회적인 수용, 관계, 활동참여, 주거, 고용, 서비스 제공자의 지원, 사회적 지원, 개인능력 및 역량, 사람들의 태도, 행동, 인식 등을 제시했다. 또한 Butler와 Hodge(2004)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비장애인과의 장애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들을 제시했다. 이 같은 체육활동참여를 통해 상호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 우정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Pawson 외(2005)는 지적장애인들이 사회관계 속에서의 경험하는 개인과 조직, 활동, 선택권, 네트워크, 소속감, 미래에 대한 희망 등을 그들의 시각에서 포함의 주제로 제시했다. 또한 지적장애인들 스스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학교, 작업장, 주간보호시설, 대학 등에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들도 밝혔다.

이외 장애인 당사자들의 구직시도와 일 경험, 고용지원을 받는 경험이 어떠한가를 통해 사회적 포함의 주제나 요소들을 도출한 연구도 있다(Wistow and Schneider, 2003). 그에 따르면 고용은 사회적 포함의 촉진요인이며, 이러한 경제활동이나 일을 통해 사회에 포함됨을 경험하는 것과 동시에 차별과 낙인 등도 함께 드러냈다. 그는 당사자들의 사회적 포함을 위해 고용기회와 직업선택권의 확대, 직업훈련의 기회, 일을 통한 사회통합, 배제 문화의 개혁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당사자들의 선택권과 통제, 우정, 활동, 관계 향상, 지역사회의 완전참여 등을 보고했다.

이상에서 사회적 포함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바와 같이 우선, 포함 현상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세부 지표개발부터 실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포함 현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제나 양상, 촉진 및 방해요인 등을 규명한 연구들이 지금까지 이뤄졌다. 이들 연구들로부터 사회적 포함은 확립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정의되기 어려운 것으로 당사자들이 처해 있는 맥락과 상황, 개별적인 성향 및 장애유형 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남이 확인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포함 현상을 개념화 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학문적 관심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문헌들을 고찰하여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독특하고 복합적인 사회적 포함 현상을 고찰하고 이를 개념화 하고자 한다.

4. 장애인복지에서 사회적 포함 접근분석의 필요성

장애인들은 경제적 빈곤이나 실업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의료, 관계, 일상생활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직면해 있다는 점, 그리고 당사들의 완전참여와 사회적 포함을 위해 복지수혜자나 의존대상이 아니라 한 구성원으로 권리와 책임을 지니며,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강조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포함되도록 기존 시각이나 접근방법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의해 논의되어 온 사회적 포함 개념 혹은 이러한 개념적 접근법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포함의 개념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이다. 이러한 개념화 작업은 그 사회의 상황이나 적용 집단에 따라 다소 달리 정의되는 면도 있지만 사회적 취약집단의 구조적이고 제도적 차원의 포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원들 간의 상호 작용과 합의에 의해 사회에 포함되는 심리사회적 인식에 동의하기 때문에 기존의 접근방법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특성을 지닌다. 특히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사회적 포함 개념에 주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사회적 포함은 여러 공동체 수준 간의 상호작용과 합의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임으로 장애인 개개인을 비롯한 공동체, 지역사회, 국간 간의 광범위한 범위까지 개입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Gannon and Nolan, 2004; Hall, 2010). 사회구조와 제도적인 차원의 접근을 넘어 관계적이고 심리사회적 차원에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합의에 의한 연대감, 공동체 의식, 소속감 등이 당사자들의 사회적 포함을 위한 적극적인 요인임이 보고됨으로 이에 관련 정책이나 세부적인 프로그램, 서비스 마련에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포함은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을 지닌다(Hunter and Jordan, 2010). 이로부터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완전참여를 위해 일상적인 생활영역부터 다양한 활동참여와 인권, 관계, 소속감, 태도, 물리적 공간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개입 및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개념적 접근에는 당사자들의 자립과 선택권, 책임, 자율성, 임파워먼트 등과 같은 원칙들이 제시되기 때문이다(Department of Health, 2001; Simpson and Price, 2009; Rimmerman, 2013). 이들 원칙은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관여되며 또한 장애정책 마련이나 서비스 계획 및 실행 등에 당사자들의 직접참여 권한과 자율성, 선택권 등을 지지한다(Simpson and Price, 2009; Australian Social Inclusion Board, 2010). 그러므로 기존 패러다임에서 간과되었던 장애인 당사자들의 능력과 잠재력, 역량 등 개인적 차원의 자원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국가 수준에서의 포괄적인 자원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나 실천전략 마련에 중요한 가치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포함 접근에는 능동적인 시민(active citizenship)이란 새로운 개념이 제시된다(Browning, 2000; Rioux, 2002). 이는 비장애인 남성 중심의 획일적인 근대의 권리 개념과 달리 장애

인, 빈민, 노인, 이주자, 여성 등을 고려하는 차별화된 권리확보를 전제한다. 또한 이에는 일방적인 권리주장과 동시에 개개인의 책임,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자립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포함 접근은 장애인들이 사회복지체제 내 의존적이고 무력한 약자로만 바라보는 보호 중심의 복지를 보편적인 제도 및 여건 개선을 수반한 복지방향을 확립하는 데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장애인들이 동등한 시민권을 가진 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서 그들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사회적 자원과 기회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적극적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장애정책과 실천전략, 서비스 방안모색에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포함 접근은 집단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내 성별과 장애유형, 연령, 계층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왜 다른 대우를 해야 되는지 등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Walzer, 1984; Okin, 1987; Kymlicka, 2001). 이는 탈시설화, 정상화, 사회통합, 평등 등과 같은 기존 패러다임이 장애인 전체집단에만 초점을 두으로써 장애인 개인이 처해있는 역사적 경험이나 맥락, 상황 등을 도외시 했던 한계점을 보완하는 등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다(Hall, 2005; Pawson et al., 2005; Ware et al., 2007; Hall, 2009).

또한 포함 개념은 기존 장애접근모델이나 통합, 평등 시각이 보편적인 장애범주에 접근했던 것과 달리 다층적인 접근, 곧 장애인들 내의 계급, 성별, 연령, 장애유형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Rioux, 2002). 그러므로 장애인들 내 다양한 집단들의 권리와 인권, 욕구, 서비스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하며 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이나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포함은 장애를 바라보는 근대적인 시각과 제도, 관계 등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대안적 개념 혹은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오늘날 다원화된 사회에 부응하는 장애정책과 실천전략, 서비스 방안마련, 장애실천 연구 등에 유용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5. 논의 및 결론

1)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에 대한 개념화를 위한 논의

사회적 포함의 개념은 복합적이며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져 한다. 이러한 개념을 논의하기 위해 정의 이론(theories of Justice)²⁾을 이론적 기초로 본다. 정의 이론은 문화다원주의에 기초하며 특정 집단의 권리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보고된다. Okin(1987)에 의하면 정의 이론은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

2) 본고에서 정의는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를 말하며 이는 소속되어 살고 있는 사회로부터의 권리, 책임, 기회 혹은 다른 '제1의 효용가치(primary goods)'(소득과 자산뿐만 아니라 자기 존중, 자존감 등과 같은 본질적인 가치까지 포함)의 분배에서의 공평성(justness)을 의미한다(Walzer, 1984; Okin, 1987; Rawls, 1999; Hunter and Jordan, 2010).

는가에 대해 주된 관심을 둬으로써 사회적 포함을 개념화 하는 데 이론적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사회적 포함 개념화의 이론적 근거는 분배적 정의에 둔다. 정의 이론들 중에는 사회적 포함의 다원적인 특성이나 개념을 분석할 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내포한 이론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롤즈의 보편적인 정의 원칙론의 경우, 그가 전제하는 원초적 상태에서 문화적 차이 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 보고된다(Hunter and Jordan, 2010). 이로써 그가 주장하는 보편적인 정의원칙은 다른 집단 간의 가치와 열망, 관점의 차이를 다루지 못하는 한계점이 비판으로 지적된다. 이와 달리 자유주의 혹은 자유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의 이론(Walzer, 1984; Okin, 1987; Kymlicka, 2001)은 사회적 포함의 개념화를 위한 적절한 이론적 토대로 보고된다. 이들 학자들에 따르면 사회적 포함은 소수자 개인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속된 집단의 정체성과 실천, 열망이 주류사회에 포함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특수한 권리를 옹호하는 동시에 보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모두 있음을 주장한다(Kymlicka, 2001).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 개념의 사회구조적인 차원에 우선 접근하고자 한다. 실제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보장받을 수 있는 교육, 고용, 건강서비스, 주택, 사회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기회로부터 중첩된 배제를 경험한다. 이로부터 사회적 포함의 제도적 구조적 차원의 접근개념은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권리확보라 하겠다. 즉 장애인 당사자들이 시민권자로서 사회 전반적인 영역이나 체계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제도화 즉 사회권의 확립을 의미한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러한 사회적 권리 내에는 성별, 연령, 계층, 지위, 신체적 차이 등 다양성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권은 기여조건이나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부여됨으로 노동할 능력이 없거나 기회가 없는 장애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그로부터 차별과 배제를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그럼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장애인들의 특수한 상황과 욕구를 고려하는 차별화된 사회권의 확립이 요구된다. 이로써 사회 제반영역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소들을 철폐하고 장애인들의 완전참여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기본 개념들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적 포함의 사회구조적 차원의 구성요소로는 권리, 자원, 기회, 소득 등으로 이들 요소에 대한 공평한 재분배를 구조적 차원의 개념으로 포괄하여 이해해야 하겠다. 사회적 포함은 보다 다양한 자원을 다루면서 이들에 대한 공평한 재분배를 통해 달성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사회적 배제 혹은 빈곤 개념은 제한된 경제적 자원만을 다루며 이러한 물질결핍으로 인한 배제와 차별의 원인을 결국 개인의 무능력이나 결핍 탓으로 환원시켰다. 이에는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안전과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자원은 개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개인주의가 내포되어 있다. 반면 사회적 포함은 권력과 자원의 공평한 재분배를 전제하며 이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사회책임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주요 이론적 토대로 삼는다.

다음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의 심리사회적 차원의 개념에 접근하고자 한다. 포함의 심리적 차원의 요소로는 관계, 수용, 소속감, 연대감, 자기 존중감 등이다. 이들은 장애인 개인과 타인, 규범, 역할, 제도, 환경 등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획득되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사회적 개인적 정체성 형성

에 또한 주된 영향을 미친다.

실제 장애인 개개인은 지역사회, 국가, 공동체 등과의 원활한 관계를 통해 구성원 간의 결속력이 강화되며 상호 유대감을 가짐으로 그 결과 사회적으로 포함되었다고 느끼고 생각하게 된다. 예컨대 구조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불평등 수준이 낮더라도 사회 구성원간의 이질감이나 불일치감이 높아 심리 사회적 차원의 사회적 포함의 수준은 상당히 낮을 수 있다(장용석 외, 2012). 그러므로 심리사회적 차원의 개념, 역시 사회적 포함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짓는 데 주요인임으로 제도적 구조적 차원과 병행하여 반드시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의 심리사회적 차원의 개념은 사회구성원 간에 서로 협력하고 유대감을 토대로 독립적인 개인으로 사회에 수용되어 감을 인식하는 가이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갖거나,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인식하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심리 사회적 요소들 중 사회적 관계는 장애인 개개인이 참여하는 소규모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국가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다층적이며 이러한 사회적 장으로부터 다양한 가치가 형성된다(장용석 외, 2012). 이처럼 심리사회적 차원의 접근개념은 사회 한 성원으로 수용되고 관여되어 가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임으로 구조적 차원과 함께 포함 개념의 적극적인 차원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 개념은 사회구조적 심리사회적인 두 차원으로 구분된다. 이들 개념 고찰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구조적 차원의 개념은 당사자들의 시민권적 기본권의 보장과 교육기회의 보장, 고용확대, 자원분배 등으로 그들의 권리와 기회, 자원 등에 대한 동등한 접근 권리를 제도적으로 확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심리사회적 차원의 요소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산출되고 획득되는 것으로 그들의 태도와 관계, 가치 등이다. 즉 이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느끼는 심리사회적인 일치감이나 결속력, 공동체 의식 등이며, 또한 자기 존중감이나 가치감 등 개인의 비가시적인 내적 요소들도 포괄한다. 이처럼 사회적 포함 개념은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 정치적, 문화적인 다양한 활동, 그리고 당사자들의 가치, 태도, 인식 등을 포괄한 개념이다(Hunter and Jordan, 2010). 이들 구조적 심리사회적 차원의 접근개념은 서로 배타적이고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연계된 특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의 수준이나 범위는 확대되거나 축소되어 나타난다.

2) 연구의 의의 및 결론

오늘날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용하기 위해 개개인의 독립적인 시민권을 인정하고 그에 준하는 동등한 시민권적 지위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사회적 경제적 경제적 아젠다로부터 비가시화 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들어 가속화된 경제의 세계화로 그들의 시민권은 더욱 제한당하며 삶의 수준 또한 취약한 상태이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동등한 시민권자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보호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접근 개념이 요구된다.

장애인에 대한 무능력, 결핍, 부적응 등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된다. 이에 지금까지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적용되어 온 차별과 배제 개념적 접근법은 사회적 장벽들을 해소하는 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근대적인 맥락에 머물러 있는 이들 분리중심의 기제와 접근으로 장애라는 차이를 차별로 양산해 내는 배제적인 사회 환경만을 더욱 강화시켜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이 삶의 과정에서 직면해 있는 다양한 이슈와 문제들을 새롭게 규명하고 정책과 실천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관점과 개념의 재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의 개념화 작업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의존이라는 기존 관점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개념과 지식체계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즉 장애인에 대한 의존과 보호관점이 아닌 포함의 시각으로 사회구조와 문화, 관계 등을 재구조화 하는 데 요구되는 개념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사자들을 다양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사회에 참여하도록 사회와 개인에게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모색에 필요한 체계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같이 능동적인 개념체계에 기초한 사회적 포함은 장애인들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에 완전히 참여하고 사회권의 확보 등 이론적 실천적 접근방안 마련에 새로운 관점과 지식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사회적 포함 개념화 작업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시켜 온 지배적인 사회담론을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변화를 위한 담론생산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포함에 관한 논쟁이나 논의들은 장애인 집단의 사회적 배제와 박탈이란 맥락과 또 다른 맥락에서 이해를 요구한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억압적인 사회 문화적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장애를 새롭게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 집단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한 사회적 포함 접근은 그들의 욕구와 관심을 차별화 하며 적극적인 사회적 관여를 위한 담론생산에 기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개념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포함은 장애인복지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양하고 포괄적인 가치를 지닌 개념으로 이러한 분석과 인식이 장애인복지 서비스전환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포함의 개념적 접근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새로운 개념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모색함으로써 장애인복지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새로운 개념이나 지식 또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동등한 시민권자로 사회에 포함되는 사회제도적 노력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 담론에서 자원에 대한 개인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그 범위 또한 제한적인 것과 달리 사회적 포함의 담론에서는 포괄적인 자원을 총체적으로 다룬다.

이렇듯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포괄적인 자원의 제공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킴으로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포함에 대한 개념이나 개념적 접근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들은 오랫동안 비가시화 되어 왔던 그들의 욕구, 관련 이슈, 의견 등을 공적 영역에 드러내며 그에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 방안마련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사회적 포함의 개념적 접근은 장애를 구성하는 기

존 사회제도와 관계 등에 도전한다. 사회 소수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대안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그에 대안적인 실천이나 방법,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 이외 일상적인 경제활동, 국가, 자원 등에 관여한다. 이렇듯 포함의 개념화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변화를 위한 대안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다름에 대한 동등한 대우가 아닌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차별적 접근이 사회적 포함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한 시민으로서 보편적인 사회적 권리를 동등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접근기회의 제도화 등 사회적 조건의 개선과 더불어 개인적인 변화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정책 입안자들은 사회적으로 포함되기 위해 사회 경제적 실천의 범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적인 집단이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시민중심의 정책계획을 마련하고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사회의 다원성과 권리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제도적인 지원과 서비스 제공 등이 여전히 사회적 포함 실천을 위한 과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가 자선이나 자혜가 아니라 시민권을 기반으로 해서 누릴 수 있는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용자 중심 곧 시민중심의 정책이나 실천적 과정이 요구된다. 장애인들을 주변인으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가능성과 창의력, 스스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 등을 가진 한 성원으로 사회에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노력 또한 요구된다.

또한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하며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등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포함되고 관여할 수 있도록 권력과 자원에 대한 공평한 재분배가 전제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장애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완전히 참여하고 포함되도록 사회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들을 제안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요청된다.

이상에서 논의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을 개념화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와 포함 개념을 비교하는 등 이들 간의 차별적인 요소 및 측면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옴으로써 두 개념 간의 상호 연결된 측면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실제 사회적 배제와 포함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다양한 삶의 상황과 맥락 등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고된다(Wistow and Schneider, 2003; Hall, 2005; 2010). 이로부터 두 개념 간에는 공통되고 상호 연계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의 경험 속에서 배제 경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동시에 배제 경험 가운데 포함의 현상도 상호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거나 혹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개념에 대한 폭넓고 보다 실제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는 통합적 시각에서 사회적 배제와 포함의 개념 혹은 두 현상 간의 공통적이며 상호 연계된 측면을 분석하고 탐색하는 연구들을 제안한다. 이로써 사회적 배제와 포함 두 개념을 분리하여 논의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이들 개념을 보다 학문적으로 구체화 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신욱·김안나·박능후·김은희·유진영, 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신욱, 2006,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동향과 전망』, 66: 9-32.
- 국가인권위원회, 2004,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영란, 2001, “사회권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자유발표: 317-342.
- 문진영, 2004, “사회적 배제와 국가 간 비교연구: 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3): 253-277.
- 문진영, 2010, “한국의 사회적 배제 성격에 대한 연구 -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2(2): 87-107.
- 서병수, 2005, “한국의 사회적 배제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721-741.
- 심창학, 2001,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비교 관점에서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4: 178-208.
- 윤인진·이진복, 2006,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의 과제”, 『한국사회』, 7(1): 41-49.
- 장용석·조문석·정장훈·정명은, 2012, “사회통합의 다원적 가치와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가주의,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시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5): 289-322.
- 한상진·박창욱 역, 2003, 『제3의길』, Giddens, A., 1998, 서울: 생각의 나무.
- Abbott, S., and McConkey, R., 2006, “The barriers to social inclusion as perceived by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0: 275-287.
- Arthurson, K., and Jacobs, K., 2009, “Discourses about Australian social housing, social exclusion and employment: indications of the post-welfare state? housing”, *Theory and Society*, 26(3): 179-192.
- Atkinson, T., Marlier, E., and Nolan, B., 2010, *Indicators and Targets of Social Inclusion in the European Union*, Dublin: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 Atkinson, R., and Davoudi, S., 2000,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in the European Union: Context, development and possibilitie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8(3): 427-448.
- Australian social Inclusion Board, 2010, “Social inclusion in Australia- How Australia is faring”, Commonwealth of Australia.
- Bauman, Z., 1998, *Work, Consumption and the New Poor*, Buckingham: Open University.
- Bowring, F., 2000, “Social exclusion: limitation of the debate”, *Critical Social Policy*, 20(3): 307-330.
- Burchardt, T., Le Grand, J., and Piachaud, D., 1999, “Social exclusion in Britain 1991-1995”,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3(3): 227-244.
- Butler, R., and Hodge, S., 2004, “Social inclu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 classes”, *Research in Middle Level Education Online*, 27: 69-86.
- Cameron, A., 2005, “Geographies of welfare and exclusion: initial report”,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 194-203.
- Carnaby, S., Roberts, B., Lang, J., and Nielsen, P., 2010, “A flexible responses: person-centered support and social inclusion for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challenging behaviour”,

- British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9: 39-45.
- Christie, I., and Mensah-Corker, G., 1999, *An Inclusive Future? Disability, Social Change and Opportunities for Greater Social Inclusion*, London: Demos.
- Colley, H., and Hodkinson, P., 2001, "Problems with bridging the gap: the reversal of structure and agency in addressing social exclusion", *Critical Social Policy*, 21: 335-359.
- Department of Health, 2001, "Valuing People: A new strategy for learning disability for the 21st Century", London: HMSO.
- European Commission's Directorate-General for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 2004, "Joint Report on Social Inclusion", Brussels: European Social and Economic Policy Center.
-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2003, "Illness, disability and social inclusion",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Forbat, L., 2006, "Valuing people: hope and dreams for the future". *British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4: 20-27.
- Fyson, R., and Simons, K., 2003, "Strategies for change: making valuing people a reality", *British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1: 153-158.
- Hall, E., 2005, "The entangled geographies of social exclusion/inclusion for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Health and Place*, 11: 107-115.
- Hall, E., 2010, "Spaces of social inclusion and belonging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4(1): 48-57.
- Hall, S. A., 2009, "The social inclu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 qualitative meta-analysis", *Journal of Ethnographic and Qualitative Research*, 3: 162-173.
- Hedlund, M., 2000, "Disability as a phenomenon: A discourse of social and biological understanding", *Disability and Society*, 15(5): 765-780.
- Hughes, B., 2002, "Bauman's strangers: Impairment and the in validation of disabled people in modern and post-modern culture", *Disability and Society*, 17(5): 571-584.
- Hunter, B., and Jordan, K., 2010, "Explaining social exclusion: towards social inclusion for indigenous australians",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45(2): 243-265.
- Gannon, B., and Nolan, B., 2004, "Disability and social inclusion in Ireland", Irelan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 Kitchin, K., 1998, "Out of place, knowing one's place: Space, power and the exclusion of disabled people", *Disability and Society*, 13(3): 343-356.
- Kymlicka, W., 2001, "Universal minority rights?", *Ethnicities*, 1: 21-23.
- McCokey, R., 2007, "Variation in the social inclusion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supported living schemes and residential setting",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1: 207-217.
- Okin, S. M., 1987, "Justice and gender",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6(1): 42-72.
- O'reilly, D., 2005, "Social inclusion: a philosophical anthropology", *Politics*, 25(2): 80-88.
- Pierson, J., 2002, *Tackling Social Exclusion*, New York: Routledge.
- Pawson, N., Raghavan, R., Small, N., Craig, S., and Spencer, M., 2005, "Social inclusion, social networks and ethnicity: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inclusion interview schedule of young

-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British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3: 15-22.
- Rawls, J., 1999,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Richardson, L., and Le Grand, J., 2002, “Outsider and Insider Expertise: The Response of Residents of Deprived Neighbourhoods to an Academic Definition of Social Exclusion”, London: Center for the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 Rimmerman, A., 2013, *Social Inclu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oux, M., H., 2002, “Disability, citizenship and rights in a changing world”, 210-227, in *Disability Studies Today*, edited by Barnes, C., Oliver, M., and Barton, L., Malden: Blackwell Publisher Inc.
- Room, G., 1995,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Bristol: Policy Press.
- Scottish Executive, 2000, *The Same as You? A Review of Services for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Edinburgh: The Stationery Office.
- Sibley, D., 1998, “The problematic nature of exclusion”, *Geoforum*, 29(2): 119-121.
- Silver, H.,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 531-578.
- Silver, H., and Miller, S. M., 2002, “Social exclusion: The european approach to social disadvantage”, *Poverty and Race*, october(3): 32-49
- Simpson, G. and Price, V., 2009, “From inclusion to exclusion: Some unintended consequences of valuing people”, *British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8: 180-186.
- Walzer, M., 1984, “Liberalism and the art of Separation”, *Political Theory*, 12: 315-330.
- Ware, N., Hopper, K., Tugenberg, T., Dickey, B., and Fisher, D., 2007, “Connectedness and citizenship: Redefining social integration”, *Psychiatric Services*, 58(4): 469-474.
- Wistow, R., and Schneider, J., 2003, “Users’ views on supported employment and social inclusion: a qualitative study of 30 people in work”, *British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1(4): 166-173.

A Theoretical Research for the Conceptualization of Social Inclusion about the Disabled

-From Social Exclusion to Inclusion-

Shin, Yuri

(Dong-Eui University)

Kim, Kyungmee

(Soongsil University)

Yoo, Dongchul

(Dong-Eui University)

Kim, Dongki

(Mook Won University)

As the interests in social inclusion is increasing, researches on social inclusion in the welfare of the disability positively are being implemented lately. It is required to be the reconsideration on previous perspectives and suggestion of the necessity of a new concept for acquiring equal accessibility on rights and resources, etc as a citizenship. It is evaluated to be useful as the perspective or approach of social inclusion in suggestion of policies and practices tasks for enhancing quality of life of the disadvantaged including the disabled and for their participating fully in overall social scopes.

Therefore, firstly on tried to make understanding in each concept, constituents, characteristic, usefulness and restriction, etc about both of social exclusion and inclusion fundamentally. On discusses how to conceptualize social inclusion of the disabled, and meanings in applying the concept or approach of social inclusion to welfare of the disability through the based mentioned results.

Key words: the disabled, social exclusion, conceptualization of social inclusion, theoretical research

[논문 접수일 : 13. 04. 04, 심사일 : 13. 04. 12, 게재 확정일 : 13. 06. 07]

〈기고자 소개〉

신유리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최근의 주요 논문은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지체와 뇌병변 장애인을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64(2), 2012),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척도개발연구”(『한국직업재활연구』, 23(1), 2013,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질적연구임.

E-mail: cuchon2011@nate.com

김경미

승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최근의 주요 논문은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척도개발연구”(『한국직업재활학회』, 23(1), 2013, 공저), “장애인의 환경척도 개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중심으로”(『장애와 고용』, 23(1), 공저), “I never expected to be a disabled person in another country: The stories of migrant workers with acquired in Korea”(『Disability and Society』, 26(5), 2011),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Disability and Society』, 26(3), 2011,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장애인복지, 질적연구 등임.

E-mail : kyungm@ssu.ac.kr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의 주요 저서와 논문은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삼인, 2002, 공저), 『장애와 차별』, (한국학술정보, 2007), 『영화로 보는 사회복지』, (양서원, 2008), 『인권으로 보는 장애인복지』 (학지사, 2013), “한국 장애인운동의 성과와 과제”(『사회복지정책』, 21, 2005), “장애인 차별 철폐와 사회적 보장 방안”(『상황과 복지』, 20, 2005), “장애인 취업알선 서비스가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장애와 고용』, 18(1), 2008),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척도개발연구”(『한국직업재활연구』, 23(1), 2013,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장애인차별과 소득보장, 지역사회조직 등임.

E-mail : dcyu@deu.ac.kr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최근의 주요 논문은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척도개발연구”(『한국직업재활연구』, 23(1), 2013, 공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담인력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소진의 매개효과 연구”(『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 29(1), 2013, 공저), “교환이론관점에서 장애인 사회적 배제 고찰”(『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3, 2012,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연구방법론 등임.

E-mail: aslikeme@hanmail.net

박미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최근의 주요 논문으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직장·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분석”(『한국사회정책』, 19(1), 2012,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근로연계복지, 탈생산적 복지, ‘비생산인구’의 생산활동, 생활시간연구임.

E-mail: parkmh1978@gmail.com

변금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주요 논문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노동정책연구』, 5(2), 2005),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고용불안정과 고용상태가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64(3), 2012)가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근로빈곤, 생애빈곤, 생활시간연구임.

E-mail : tgoldsun@naver.com